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오 선 경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김 동 민**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국내 음악치료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음악치료사 102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음악치료사들의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은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소진이 낮고 자기탄력성이 높을수록 직업정체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에 심리적 소진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탄력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직업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소진의 설명력은 17%이며 자기탄력성의 설명력은 약 7%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사가 높은 직업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전략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직업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적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음악치료사, 심리적 소진, 자기탄력성, 직업정체성

1990년대 후반 숙명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유수대학에 설립된 음악치료 관련 학, 석사 학위과정을 통해, 양질의 음악치료사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되고 배출되어왔다. ‘음악치료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지 20년여 년이 지난 현재, 10년 후 전망이 좋은 상위 직업 20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중 하나로 언급될 만큼 음악치료사는 유망하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고 명료히 수립되는 것은 매우 의미미한 일이나, 이 직업에 대한 음악치료사들 스스로의 인식이 긍정적이고 명료히 수립되는 것이야말로 음악치료사를 양성하는 학위과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따라서 국내 음악치료사들의 직업정체성과 이에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음악치료사 교육,

* 이 연구는 2016년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eastjadekim@gmail.com

훈련 및 재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예견함에 있어 매우 필요하다.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지각하는 심리적 일체감(유홍준, 유태용, 정태인, 배성호, 조아름, 2014) 또는 감정적 동일시(김지훈, 김경호, 2010)를 의미하는 직업정체성(occupational identity)은 개인의 직업적 역할 지속, 심리사회적 적응, 안녕감, 및 삶의 만족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김상형, 2010). 또한 직업정체성의 정도는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임하는 태도와 연관되며(박종우, 1994), 삶의 질과도 관련된다(류태호, 2000). 이는,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이 음악치료사로서의 직무태도, 역할 및 적응 등과 같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영위하는 삶의 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정체성 관련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직업정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소진 정도가 낮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는데(김정숙, 유금란, 2010; 안수경, 2000; 오요셉, 2005; Butlter & Constantine, 2005; Yu, 2008), 이러한 결과들은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 또한 심리적 소진과 부적상관을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내담자가 가진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치료사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김영신, 2013; 김인경, 2012; 윤아람, 정남운, 2011). 그러나 치료사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을 무능감과 혼돈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홍준호, 2004), 제대로 인식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김지선, 이영애, 2012). 치료사가 자신의 심리적 소진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의 본질을 내담자에게 투사하여 결과적으로 치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치료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현숙, 이영애, 2009). 따라서 음악치료사가 자신의 심리적 소진을 제대로 인식하고 관리하며 극복하는 것은 음악치료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유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근래에 심리적 소진의 극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인들 중 하나가 자기탄력성(self-resilience)이다. Masten(2001)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내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과 상동적 의미를 가지는 자기탄력성은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회복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이를 구성하는 심리내적 요인으로는 정서적 표현의 적절성, 자기수용, 자기 확신, 유능·유창성, 창조성, 재확신에 대한 추구, 공감 등이 있다(Block & Block, 1980).

자기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자기탄력성과 심리적 소진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는데(김나영, 2011; 김지선, 이영애 2012; 박현주, 김봉완 2010; 박희현, 오숙경 2013), 이는 음악치료사의 자기탄력성 또한 심리적 소진과 부적 상관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 이제까지 살펴본 직업정체성, 심리적 소진 및 자기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

성에 심리적 소진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탄력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 또한 가능하다.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고도 명료히 수립된 현재, 음악치료사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직업정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은 음악치료사들의 긍정적인 직업정체성 확립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들이 스스로 지각하는 직업정체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설립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은 어떠한가?; 2)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음악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다음으로, 이제까지 살펴본 직업정체성, 심리적 소진 및 자기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설립된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은 직업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음악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은 직업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법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절차

이 연구의 대상은 음악치료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음악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급 또는 그에 준하는 음악치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들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음악치료사가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거나 전자 메일로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가 음악치료 관련 협회가 주최하는 학회행사에 직접 방문하여 총 99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고 그 중 57부를 회수하였는데, 이 중 결측치가 많은 3부를 제외한 54부를 1차 자료로 확보하였다. 다음으로는 1차 자료수집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1차에서와 같은 자격을 가진 음악치료사들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15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51부에서 결측치가 많은 3부를 제외한 48부를 2차 자료로 확보하였다. 즉, 총 25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된 102부(회수율 39%)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가. 심리적 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심리적 소진에 관한 설문지는 Maslach와 Jackson(198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최혜윤(200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MBI는 Likert식 7점 척도(0=전혀 없음, 6=매일)로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유형은 정서적 고갈(9문항),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5문항)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감소(8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 연구에서 분석된 심리적 소진 척도의 Cronbach's α 는 .887이었다.

나. 자기탄력성 척도(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CPI)

음악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Klohenn(1996)이 개발 및 타당화한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을 박현진(1996)이 번안한 것이었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의 Likert식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그 하위요인은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14이었다.

다. 직업정체성 척도(Occupational Identity Inventory: OII)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홍준, 유태용, 정태인, 배성호, 조아름(2014)이 개발한 직업정체성 척도(OII)를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 하기에 보다 적절하도록 연구자들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가지의 하위요인(사명감, 자부심, 지속의도, 직업 평판, 삶의 목적, 헌신, 개인-직업 부합, 일체감, 감정 이입)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강한 직업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9이었다.

분석방법

총 102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이 직업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SPSS 20.0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음악치료사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 자기탄력성, 직업 정체성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선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인구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기술통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표 1 참조),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83.4%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95.1%)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석사(53.9%)와 학사(45.1%)가 99%를 차지하였다. 주 당 제공하는 음악치료 회기의 수는 11에서 30회기가 66.7%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수입은 180만원 미만이 78.5%를 차지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분류

(N=102)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대	20대	42	41.2
	30대	43	42.2
	40대	17	15.7
	50대 이상	1	1.0
성별	남성	5	4.9
	여성	97	95.1
최종학력	학사	46	45.1
	석사	55	53.9
	박사	1	1.0
자격증 취득 후 임상경력	5년 이하	79	77.5
	6년 이상	24	22.5
주 근무지	병원	9	8.8
	복지관	29	28.4
	연구소	6	5.9
	학교	8	7.9

〈표 1〉 계속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주 근무지	사설센터	49	48.0
	기타	1	1.0
주 내담자	아동	72	70.6
	청소년	18	17.6
	성인	5	4.9
	노인	7	6.9
주당 평균 근무시간	10시간 이하	16	15.7
	11-20시간	21	20.6
	21-30시간	41	40.2
	31-40시간	21	20.6
	41시간 이상	3	2.9
주당 평균 회기 수	10회기 이하	20	19.6
	11-20회기	37	36.3
	21-30회기	31	30.4
	31-40회기	13	12.7
	41회기 이상	1	1.0
월 평균 수입	120만원 미만	48	47.1
	120만원 이상	32	31.4
	180만원 미만	33	32.1
	180만원 이상	33	32.1

학력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음악치료사의 최종 학력에 따라 심리적 소진, 직업정체성, 자기탄력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사($n=46$)와 석사학위 이상($n=56$)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2〉는 학력에 따른 심리적 소진, 자기탄력성과 직업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결과이다.

〈표 2〉 학력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N=102)

구분		<i>n</i>	<i>M</i>	<i>SD</i>	<i>t</i>	<i>p</i>
심리적 소진	학사	46	88.23	12.00	2.404	.018*
	석사 이상	56	83.28	8.77		
직업정체성	학사	46	106.08	16.32	-3.497	.001*
	석사 이상	56	116.07	12.50		
자기탄력성	학사	46	74.26	12.80	2.523	.013*
	석사 이상	56	68.03	12.05		

* $p < .05$

〈표 2〉를 살펴보면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들 보다 학사 학위 소지자가 더 높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 2.404, p < .05$), 학사 학위 소지자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보다 높은 자기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524, p < .05$). 또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직업정체성이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3.497, p < .05$).

월 수입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음악치료사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심리적 소진을 알아보기 위해 초보 음악치료사의 정규직 급여가 월 12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여 120만원 미만($n=48$), 120만원 이상 180만원 미만($n=32$), 180만원 이상($n=22$)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악치료사의 월 평균 수입과 직업정체성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3 참조).

먼저, 음악치료사의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 = 7.932, p < .05$), 특히 월수입이 120만원 미만인 집단이 경험하는 소진이 180만원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사의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자기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F = 3.814, p < .05$), 월수입이 120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180만원 이상인 집단의 자기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월 평균 수입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 (N=102)

요인	구분(만원)	n	M	SD	F	p	사후검정
심리적 소진	120 미만	48	51.23	16.03	7.932	.001*	a>c
	120 - 180 미만	32	45.00	13.33			
	180 이상	22	36.55	12.25			
	합계	102	46.11	15.40			
자기탄력성	120 미만	48	102.71	15.28	3.814	.025*	a<c
	120 - 180 미만	32	105.69	15.69			
	180 이상	22	113.50	14.19			
	합계	102	105.97	15.61			
직업정체성	120 미만	48	76.46	10.86	.872	.421	
	120 - 180 미만	32	77.88	10.93			
	180 이상	22	79.91	7.15			
	합계	102	77.65	10.20			

* $p < .05$

각 요인별 상관분석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 자기탄력성, 직업정체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각 요인별 상관계수

	1	2	3
1. 심리적 소진	1		
2. 직업정체성	-.414**	1	
3. 자기탄력성	-.597**	.263**	1

** $p < .01$

심리적 소진은 직업정체성과 부적상관(-.414**)을 가지며 자기탄력성에도 부적상관(-.597**)을 나타내었다. 반면, 직업정체성과 자기탄력성 간은 정적상관(.263**)을 보였다.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직업정체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심리적 소진과 직업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심리적 소진이 직업정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 -4.546, p < .001$), 이 때 심리적 소진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탄력성 역시 직업정체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 = 2.729, p < .01$), 이 때 자기탄력성이 직업정체성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약 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상수)	90.285	2.930		30.814	.000***
심리적 소진	-.274	.060	-.414	-4.546	.000***
$R^2 = .171, F = 20.662^{***}$					
(상수)	59.412	6.754		8.797	.000***
자기탄력성	.172	.063	.263	2.729	.008**
$R^2 = .069, F = 7.446^{**}$					

** $p < .01$, *** $p < .00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과 자기탄력성이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국내 음악치료사 102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소진, 자기탄력성 및 직업정체성의 차이여부를 알아보았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의 최종 학력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음악치료사에 비하여 학사 학위만을 소지한 음악치료사가 심리적 소진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혜전(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직업정체성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

을 소지한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이 학사학위만을 소지한 음악치료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 비용 및 노력을 투자한 음악치료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더 많은 의미와 애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월 평균 수입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분석에서는 월 평균 수입 120만원 미만 집단의 음악치료사들에 비하여 180만원 이상 집단의 음악치료사들이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는 동시에 자기탄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정체성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는 음악치료사들이 그렇지 못한 음악치료사들에 비해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며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해내지만, 음악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은 경제적 보상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사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기가 물질적 보상과는 다른 차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연구 가설 검증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은 직업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심리적 소진의 영향력은 17%로 높게 나타났다. 즉,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심리적 일체감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기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악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음악치료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슈퍼비전 또는 피어비전(동료슈퍼비전)을 제안할 수 있겠다. 또한, 음악치료사들이 보수교육을 통해 소진에 대한 예방 및 대처기술을 함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음악치료사의 자기탄력성은 직업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또한 지지되었는데, 이 때 직업정체성에 미치는 자기탄력성의 영향력은 약 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감을 충분히 발달시키고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적, 환경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2014년에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아직까지 그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 받을 만큼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 도구는 음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어서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을 측정하기에 최적의 도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를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을 측정하기에 보다 적절하도록 부분 수정하여 사용한 이유는 아직까지

음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 된 직업정체성 측정도구가 전무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로운 도구가 개발된다면,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직업정체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소진 및 자기탄력성의 영향을 고찰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사들이 자신의 직업을 자기 것으로 느끼고, 자신의 직업에서 의미를 찾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충분한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직업적, 심리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처하는 기술과 더불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한다.

참고문헌

- 김나영 (2011). **미술치료사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에 따른 심리적 소진**.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상형 (2010).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이 직무만족과 생성감에 미치는 영향-고양시, 파주시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영신 (2013). 음악치료사의 직업자존감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진의 매개 역할.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5(2), 1-20.
- 김인경 (2012). 음악치료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41-61.
- 김정숙, 유금란 (2010).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53-69.
- 김지선, 이영애 (2012). 놀이치료사의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4), 567-585.
- 김지훈, 김경호 (2010).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자기효능감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직업정체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2, 107-127.
- 류태호 (2000). **체육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박종우 (1994).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박현숙, 이영애 (2009). 놀이치료자의 5요인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35-47.
- 박현주, 김봉완 (2010). 상담자의 성인에착유형과 자아탄력성 및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2(1), 33-52.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박희현, 오숙경 (2013). 청소년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6(2), 153-169.
- 안수경 (2000).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정체성과 재교육 및 소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근무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오요셉 (2005). **사회복지 전문종사자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와 자기정체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유홍준, 유태용, 정태인, 배성호, 조아름 (2014). 직업정체성 척도개발과 직업정체성의 선행 및 결과변인들 간 관계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4), 617-642.
- 윤아랑, 정남운 (2011). 상담자 소진: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23(2), 231-256.
- 정혜진 (2016). 심리치료사의 자기성찰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7(2), 59-79.
- 최혜윤 (2002). **상담자의 완벽주의 성향,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02, 20). KRIVET 직업전망 지표 개발(2010). www.krivet.re.kr 에서 검색.
- 홍준호 (2004). **상담 교사의 자아 강도, 사회적 지원 및 소진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t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utlter, S. K., & Constantine, M. G. (2005). Collective self-esteem and burnout in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9, 55-62.
- Klohm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Research edition*. Pala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s: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Yu, K. (2008). The role of counselor's collective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faction and counselor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0(1), 197-213.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Burn-out and Self-resilience on Occupational Identity

Oh, Sun Kyung

Kim, Dong Mi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music therapists' burn-out and self-resilience on their occupational identity, so that it can suggest ways to maintain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 music therapists.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1) music therapists' burn-out woul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occupational identity; 2) music therapist' self-resilience would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occupational identity. The study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randomly sampled 102 music therapists in South Korea and tested its hypotheses using the regression analysis. The testing results were: 1) the more burn-out, the lower occupational identity; the influence of burn-out on occupational identity was estimated as 17%; 2) the higher self-resilience, the higher occupational identity; th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on occupational identity was at about 7%. Music therapists' burn-out had a negative influence while self-resilienc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occupational identity. This implicates that music therapists need to develop capabilities to prevent burn-out by developing their own stress management skills. Further, music therapists need to increase their self-resilience to maintain their occupational identity. By doing so, music therapists can consistently offer qualified music therapy services to their clients.

key words: music therapist, burn-out, self-resilience, occupational identity

1차원고 접수일 : 2016년 3월 16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6년 4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16년 4월 17일